

끈끈한 팀워크로 새롭게 출발한 상하수도연구개발팀

지난 1월 말, 한국상하수도협회 내 조직개편이 있었다. 협회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으로 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협회 내 여러 팀 중에서 상하수도연구개발팀을 제일 먼저 만났다.

글 윤중환 · 사진 김성구

협회의 브레인인 모였다! 상하수도연구개발팀

기술지원처 소속의 상수도팀과 하수도팀이 기술지원팀과 연구개발팀으로 새롭게 정비됐다. 상수도과 하수도 부분으로 나뉘어 각각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했던 지난 체제에 비해 새롭게 정비된 기술지원팀은 상하수도에 대한 모든 기술지원 및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

당하고, 연구개발팀은 상하수도 관련 연구 및 해외자료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원들 역시 각 팀의 본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과 성향 등을 고려, 재배치하였다. 이로써 협회 내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연구개발팀의 팀원이 된 사람은 최태용 팀장을 중심으로 윤여천 대리, 이연미 대리, 최성현 사원이다. 이들은 자타 공인 기술지원처 내의 브레인들이다. 평소 연구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 능력을 인정 받아온 팀원들은 기술지원과 관련한 모든 대민 업무를 기술지원팀에 이양하고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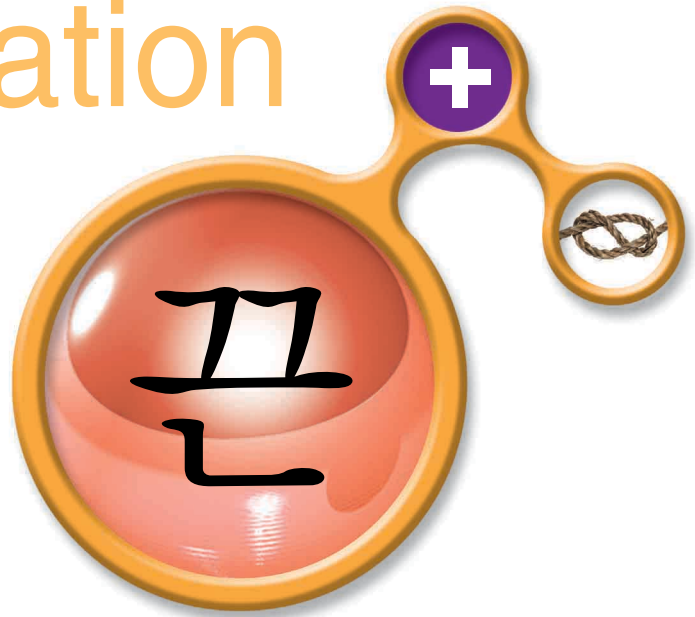
연구개발의 성과는 곧바로 회원들에게 공급

“연구개발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부에서 수주 받는 연구 용역과 외부로 나가는 연구 용역을 관리하는 부분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연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졌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팀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연미 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자료 하나를 찾아서 보더라도 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 줄어 상대적으로 남은 시간을 연구능력 향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개발팀은 외부의 정부기관이나 정부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을 수주해서 일부는 자체적으



Association



로 소화하고, 일부는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발주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서 상하수도 시설기준들을 제정·관리하는 업무를 비롯, 해외의 통계나 자료 및 학술지를 번역·보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업무량은 줄었지만 일의 깊이나 중압감은 더 커졌다.



연구개발팀의 업무 성과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상하수도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서비스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되게 된다.

끈끈한 팀워크로 똘똘 뭉친 우리는 한 팀!

연구개발팀은 '우리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 한 팀'이라는 의식이 남다르다. 팀원들 모두가 동문이거나 전공이 같아서 관심사가 비슷하고, 지인들의 범위도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은 업무 능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감까지도 높여주고 있다.

윤여천 대리는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어서 연구나 자료 조사를 할 때 이해도가 빠르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인간적으로도 서로 잘 이해하는 팀원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기탄없이 부탁할 수 있고, 또한 기꺼이 도와준다. 그것이 바로 연구개발팀의 팀워크이다.

"업무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터놓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지만, 같이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끈끈한 팀워크를 위해 팀원들에게 바라는 최태용 팀장의 주문이다.

최태용 팀장은 아직 미혼인 팀원들이 올해는 모두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는 자상한 말씀도 잊지 않았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웃는 얼굴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최성현 사원의 말처럼, 즐겁게 일하고 서로 챙겨주는 연구개발팀의 인간적인 분위기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올해 목표로 한 연구 용역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협회 회원에게 그 혜택이 모두 돌아가는 눈부신 성과를 올리기를 바란다. 